

후천세계가 지향하는 인간상 탐구

- 정역의 지인(至人) 중심으로 -

박혜순

서강대학교 · 강사

I. 시작하는 말
II. 후천개벽사상

III. 후천세계의 인간관
IV. 맺는 말

I. 시작하는 말

한국의 신흥 민족종교들의 정신적 뿌리는 『정역(正易)』(이하 정역으로 칭함)의 후천사상에 기반하고 있다. 정역은 한국 신흥민족종교의 산실이며 연원이라 할 수 있다. 대순진리회의 후천개벽을 비롯해서 원불교의 정신개벽, 천도교의 다시개벽, 증산교의 삼계개벽이 모두 정역의 후천개벽에 근거하고 있다.¹⁾ 정역의 후천사상은 김일부에 의해 제기된 고유한 개념으로 평가된다.²⁾ 후천개벽사상에 따르면, 우주변화에 따라 우주의 시계가 이제 ‘선천에서 후천으로’ 이동하는 교체기에

1) 임병학, 「한국 신흥종교에 있어서 후천개벽과 역(易)의 상관성」,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5 (2013), pp.235-243.

2) 중국의 『주역』이 변화의 원리에 중점을 두어 정태성(靜態性)을 강조하고 있다면, 한국의 김일부가 제출한 『정역』은 변화의 역동성에 초점을 맞춰 동태성(動態性)을 부각시킴으로써 김일부는 주역 철학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된다.

이르렀으며, 후천세계가 도래하면 모든 사물이 각기 제 자리를 찾아 알맞게 자리 잡고 알맞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김일부의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 시공간의 주기변화로 말미암아 이 세계는 ‘복희역’에서 ‘문왕역’으로 그리고 ‘일부역’으로 변화되고 있다. 복희역은 원역(原易), 부족의 역, 문자이전의 소박한 자연역이며, 문왕역은 주역, 장역(長易), 민족의 역, 문자 이후의 문교(文巧)한 인위역이며, 일부역은 정역, 성역(成易), 인류의 역, 문자를 초월한 신화의 역으로 평가된다.³⁾ ‘자연역’에서 ‘인위역’으로, ‘인위역’에서 ‘신화역’으로, ‘생역(生易)’에서 ‘장역(長易)’으로, 장역에서 ‘정역(正易)’으로 변화되는 이 흐름은 마치 역의 일생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자연역이 태어나 자라는 사이 문자가 생겨나고, 문자와 더불어 장성하면 인위역이 된다. 그 다음 정역이 출현했다. 정역의 핵심은 동적 변화에 있다. 정역의 출현으로 종교 윤리 과학 철학 등 다방면에서 관점의 변화가 제기되었다. 정역의 후천사상은 앞으로 펼쳐질 세계가 ‘부조화에서 조화로’,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분열에서 통일’로 ‘소인의 시대에서 군자의 시대’로 변화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정역연구의 대가, 이정호는 김일부가 제시한 새로운 비전 및 주장을 적극 수용해서 후천세계에는 음양의 조화와 균형이 이뤄짐에 따라 인간사회에도 일대변혁이 일어나 남녀의 평등이 저절로 이뤄지며, 모든 인간이 서로 아끼고 존중할 줄 아는 세계로 변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⁴⁾ 이런 전망이 현실로 구현된다면 매우 바람직한 변화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런 세계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도덕적 혁명이 요구된다. 이에 한국의 신흥민족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계의 변화의 주역은 바로 인간이고, 인심(人心)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정역에서 제시하는 변화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3) 이정호, 『정역과 일부』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4), pp.139-140.

4) 같은 책, p.170.

김일부는 「포도시(布圖詩)」에서 천공(天工)이 인간의 도덕성 회복을 촉구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천공이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기다리고 있음을 누가 알라!”⁵⁾ 이 말은 조화, 균형, 통일이라는 천지의 변화는 인간의 도덕적 완성과 더불어 이루어진다는 『태평경』의 중화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태평경』의 우주론에 따르면 이 세계는 태양, 태음, 중화 삼기(三氣)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은 천지사이에서 중화(中和)의 중심 주체, 천지만물의 소통을 책임져야 할 도덕적 주체다. “태음, 태양, 중화 삼기가 함께 리를 이루고 다시 서로 감응하여 움직이며 인간은 중추가 된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것을 깊이 인지해야 한다.”⁶⁾ 그런데 만일 인간이 중화의 기를 보호하고 순환시켜야 하는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하늘과 땅이 병들게 되고 그 결과 자연의 재앙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 세계는 불통의 세상이 되고, 그 책임은 인간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⁷⁾ 그러므로 “천공이 인간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天工待人成].”는 일부의 말은 곧 『태평경』에서 말하는 중화의 주체로서의 인간, 우주적 도덕의 완성자로서의 인간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이해되며 이 세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데는 인간의 도덕적 완성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역의 후천세계에서 천지일월의 주체는 ‘지인(至人)’이다. ‘지인’ 개념에는 우주조화 원리에 따라 자연세계가 변화된다 해도 인간의 도덕적 회심이 수반되지 않으면 진정한 천지의 변화[天工]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암묵적 언명이 담겨있다. 이 글에서는 강증산이 정역에서 천지변화 발전의 주체인 ‘지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척’과 ‘해원’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인존(人尊)’의 시대를 여는 주역(主役)으로 성장

5) 『正易·布圖詩』, “誰識天工待人成.”

6) 『太平經·名爲神訣書』, “太陰、太陽、中和三氣共爲理, 更相感動, 人爲樞機, 故當深知之.”

7) 여기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글을 참고할 것. Chi-Tim Lai, “The Daoist Concept of Central Harmony in the Scripture of Great Peace: Human Responsibility for the Maladies of Nature”, *Daoism and ecology: ways within a cosmic landscape*, edited by N.J. Girardot, James Miller, and Liu Xiaogan. Cambridge, Mass: Center for the Study of World Religions, Harvard Divinity School, 2001. pp.95-111.

하는지 그 사상적 연원관계를 살펴본 뒤, 정역과 대순사상에서 지향하는 인간상이 미래세계의 주역이 되기에 어떤 면에서 적합한지 그 정당성을 논해보려 한다.

II. 후천개벽사상

선천과 후천의 구분은 다소 복잡하다.⁸⁾ 간단히 살펴보자면, 소강절⁹⁾ 역학에서 선천은 복희역이고, 후천은 문왕역을 말한다. 복희역은 문자가 없고 천지만물의 이치와 음양시종의 변(變)을 갖춘 그림이며 이를 「선천도」라 한다. 후에 문왕이 그린 팔괘도를 「후천도」라 하는데,¹⁰⁾ 복희역과 달리 문자로 풀이되어 있어 ‘문자역’이라 한다. 현재 『주역』은 공자가 문왕역을 근거로 삼아 전(傳)을 지은 것이므로 문왕의 관점이 투영된 것이다. 복희 팔괘도와 문왕 팔괘도는 <그림1>처럼 그 위치가 서로 다르다. <그림1>에서 선천도는 천지개벽 이전에 정해진 것으로 자연의 이치에 따른 것이며¹¹⁾, 후천도는 천지만물이 정해지고 난 뒤에 천지만물의 운행 변화 이치에 따라 맞춘 팔괘의 방위를 뜻한다.¹²⁾

8) 선후천의 구분에 관한 이론은 의외로 복잡하다. 시공간의 변화 순서는 이 글의 주된 관심이 아닐뿐더러 선후천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나와 있으므로 지면상 생략하고 이 글에서는 선후천을 가르치는 내적 개념이 인간의 도덕성에 있다는 점에 국한해서 살펴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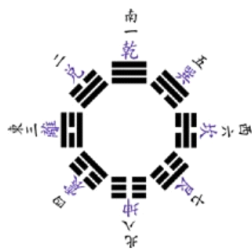
9) 소용의 역학은 도교 및 도학가의 역학에서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공자의 『역전』이 전하는 역학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 그래서 선천역학(先天易學)이라고도 불린다. 요명준, 강학위, 양위현 지음, 『주역철학사』, 심경호 옮김 (서울: 예문서원, 1994), p.406.

10) 같은 책, p.5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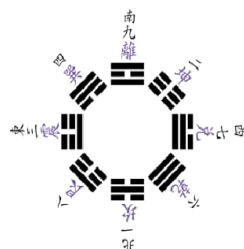
11) ‘선천 팔괘’는 경문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다. 「설괘전」을 토대로 하늘은 남, 땅은 북, 해는 동, 달은 서, 산은 서북, 못은 동남, 바람은 서남, 우레는 동북이라고 추정할 것이다. 같은 책, p.31.

12) 같은 책, pp.30-31.

<그림 1>



복희팔괘방위(선천도)



문왕팔괘방위(후천도)

문헌학적으로 볼 때, 선천과 후천이라는 말의 연원은 『건괘·문언전』 “하늘보다 먼저 하여도 하늘이 어기지 않고[先天而天弗違], 하늘보다 뒤에 하여도 하늘의 때를 받는다[後天而奉天時].”는 구절이다. 「문언전」의 앞뒤 맥락을 살펴보자.

“무릇 대인이란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합하며, 일월과 더불어 그 밝음을 합하며, 사시와 더불어 그 질서를 합하고, 귀신과 더불어 그 길흉을 합한다. ‘하늘보다 먼저 하여도 하늘이 어기지 않고[先天而天弗違], 하늘보다 뒤에 하여도 하늘의 때를 받는다[後天而奉天時]’ 하늘도 또한 어기지 않는데 하물며 인간을 어길 것이며, 하물며 귀신을 어기겠는가?”¹³⁾

이 구절에서 주어는 ‘대인’이다. 「문언전」의 【전(傳)】에서 ‘대인’은 성인을 뜻한다.¹⁴⁾ 대인이 하늘보다 앞서 행해도 하늘이 그와 함께하고, 하늘보다 뒤에 행해도 하늘에 순응할 수 있는 것은 그 행위가 도에 합치되기 때문이다. 덕을 베풀 때는 천지의 마음과 같고, 밝기는

13) 『周易·乾卦·文言』, “夫大人者, 與天地合其德, 與日月合其明, 與四時合其序, 與鬼神合其吉凶. 先天而天弗違, 後天而奉天時, 天且弗違, 而況於人乎! 況於鬼神乎!”

14) 『周易·乾卦·文言』【傳】, “大人 與天地日月四時鬼神. 合者 合乎道也. 天地者 道也. 鬼神者 造化之迹也. 聖人 先於天而天同之 後於天而能順天者 合於道而已.” (대인이 천지일월사시귀신과 더불어 합하는 것은 도에 합하는 것이다. 천지는 도이고, 귀신은 조화의 자취이다. 성인이 하늘보다 먼저 하여도 하늘이 이에 같이 하고 하늘보다 뒤에 하여도 하늘에 순응할 수 있는 것은 도에 합할 뿐이다.)

일월의 비춤과 같고, 일의 순서를 지킴은 사계절의 질서와 같고, 길흉을 받아들임은 귀신과 같다. 여기서 주자가 생각하는 대인의 조건은 ‘사욕이 없고’ ‘도로서 본체를 삼는’ 것 두 가지이다.¹⁵⁾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너와 나’, ‘앞과 뒤’의 구별이 없어지고, 이런 경계에 이르면 하늘은 그가 앞서건 뒤서건 개의치 않고 돕는 것이다. 행위법칙이 도에 있으니 모든 행위가 다 도에 합치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로써 대인의 유무가 선후천의 구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나는 선천후천을 가르는 내적 개념이 대인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대인은 후천세계를 여는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후천세계가 열리는 두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는 우주의 개벽이요, 다른 하나는 인간의 내적 개벽이다. “개벽은 땅의 개벽이며 동시에 사람의 인격개벽이다.”¹⁶⁾ 이 때 인격개벽은 인간의 도덕적 혁명, 의식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 실존양식의 변화를 의미한다.¹⁷⁾

장자철학에서 개벽은 존재의 질적 전환을 통해서 비로소 이뤄진다. 『장자·소요유』편에서 북녘 바다에 살던 물고기인 곤(鯀)이 하늘을 나는 거대한 새로 변하여 남명으로 날아간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¹⁸⁾ 물고기와 새는 형질도 다르고 존재방식도 다른 존재인데 어떻게 바다생물인 물고기가 하늘을 나는 새로 변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장자는 우리에게 ‘패러다임의 변화’, ‘의식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촉구한다. “기존의 자기와 결별하지 않고는 절대 새로운 자기를 만날 수 없다.”¹⁹⁾는 것이다. 정역의 후천사상은 인간이 존재의 질적 전환을 이뤄야 고치에

15) 『周易·乾卦·文言』【本義】，“大人无私，以道爲體，曾何彼此先後之可言哉。”(대인은 사욕이 없어 도로서 본체를 삼으니 어찌 피차와 선후를 말할 수 있겠는가)

16) 김용환, 「정역의 후천 개벽윤리」, 『윤리연구』 79 (2010), p.178.

17) 소용이나 김일부에 따르면 우주의 개벽은 이미 시작되었다. 문제는 이에 상응할만한 인간의 내적 개벽이 수반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후천개벽사상은 인간의 도덕적 심성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고, ‘인간의 개벽,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18) 陳鼓應, 『莊子今註今譯』(北京: 中華書局, 2001), p.1, “北冥有魚, 其名爲鯀。鯀之大, 不知其幾千里也。化而爲鳥, 其名爲鵬。鵬之背, 不知其幾千里也。怒而飛, 其翼若垂天之雲。是鳥也, 海運則將徙於南冥。”

19) 최진석, 『인간이 그리는 무늬』(서울: 소나무, 2013), p.223.

서 나비가 나오듯 다음 세상이 열린다는 것이다. 정역에서 말하는 선천에서 후천으로의 변화는 ‘상극에서 상생으로’, ‘비괘에서 태괘로’, ‘소인의 시대에서 군자의 시대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나비와 고치 속의 애벌레는 차원이 다른 존재다. 애벌레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하늘을 날 수 없듯이 인간의 내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후천세계가 온다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을 것이다.

1. 선천에서 후천으로

정역의 출현으로 선후천 변화원리가 밝혀지고 후천개벽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형성되자 주역의 이치는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된다. “복희도의 인간조화와 문왕도의 자연 순환에서 벗어나서, 정역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관심을 두면서 후천세계의 변화를 역수중심으로 다룬다.”²⁰⁾ ‘인간의 조화’를 피하던 역에 관한 연구가 ‘자연의 순환’을 살피는 단계로 나아가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미래세대의 존속을 고려할 때, 정역의 주된 관심 주제인 ‘인간과 자연의 조화’는 우리시대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 과제이다. 따라서 정역은 미래세대가 나아갈 방향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정역에 따르면 후천세계에는 우주의 변화로 말미암아 천지비괘(䷗)가 지천태괘(䷁)로 바뀌고, 인간사회에도 일대변혁이 일어나 ‘분열된 사회’가 ‘통일’되고, ‘불통의 시대’가 ‘소통의 시대’로 변화되고, ‘불균형’이 ‘균형’을 되찾고, ‘부조화’가 ‘조화’를 회복하며, 소인의 무리에 꺾박받던 군자가 때를 얻어 지위를 확보하고 뜻을 펼치게 된다. 김일부가 보기에 선천시대에는 이런 전망이 불가능했지만 후천시대에는 가능하다는 것이다.²¹⁾ 정역에서 말하는 선천과 후천에 대해 살펴보자.

20) 김용환, 「정역의 후천 개벽윤리」, 『윤리연구』 79 (2010), pp.161-163.

21) 김용환의 연구에 따르면 선후천 개념은 다음과 같다. “선후천 교역기는 음양의 교체이다. 선천이 육신의 세상이라면 후천은 영적(靈的) 최령자의 시대이다.” “21세기는 목운(木運)의 시기이며 선후천 음양의 교체기이다. 선후천 교역은 음양론으로는

“찾다 비었다 함은 기(氣)이니 선천이요. 소멸했다 자랐다 하는 것은 리(理)이니 후천이다. 후천의 도는 굴신이고 선천의 정사는 진퇴다. 진퇴의 정사는 달이 차고 달이 비움이고 굴신의 도는 달이 소멸했다 달이 자라는 것이다.”²²⁾

인용문에서 선천은 ‘기의 영허(盈虛)’로 이루어진 시대이고, 후천은 ‘리의 소장(消長)’으로 이루어진 시대다. 후천의 도는 ‘굴신의 작용’으로 드러나고, 선천의 정사는 ‘진퇴’로 표현된다. ‘진퇴의 정사’는 달이 차고 기우는 것에 비유되고, ‘굴신의 도’는 달이 소멸하고 다시 자라나는 것으로 비유된다.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은 기의 작용이고, 달의 생장소멸은 이치에 따른 것이므로, 선천의 정사는 기의 작용에 따라 변화되지만, 후천의 도는 자연의 이법에 맞게 운행된다는 것이다. 양재학의 연구에 따르면, ‘변화’의 개념규정에 따라 선천역과 후천역의 성격은 판이하게 달라진다.²³⁾ 일반적으로 성리학자들은 ‘기’의 작용보다 ‘리’라는 보편적 원리를 중시했다. 그들은 우주의 보편적 원리를 중시해서 ‘간이’, ‘불역’, ‘변역’의 삼원칙 가운데 ‘변역’보다 ‘불역’을 중심으로 놓는다. 이들은 ‘변역’이 변화의 생성법칙이고, ‘불역’은 변화의 중심에서 변하지 않는 실체라고 생각한다.²⁴⁾ 성리학자들처럼 역을 ‘리’ 중심으로 해석하면 시간성을 배제하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에

양의 시대에서 음의 시대로 교역하는 것이며 오행으로는 화(火)와 금(金)의 교역이다.” 같은 글, p.167, p.178.

22) 『正易·一歲周天律呂度數』, “盈虛氣也先天, 消長理也后天. 后天之道屈伸, 先天之政進退. 進退之政月盈而月虛, 屈伸之道月消而月長.”

23) 양재학, 「정역사상의 현대적 이해」, 『동서철학연구』 24 (2002), p.22.

24) 전통적 주역관에 익숙한 과거의 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앞선 세계가 선천이며, 현재의 세계가 바로 후천이라고 평면적으로 풀이하였다. 김일부는 「설괘전」을 재해석함으로써 전통의 선후천관을 완전히 뒤바꾼다. 그는 선천역을 현상적 변화의 배후에 존재하는 법칙성 안에서 반복하고 교류하는 ‘교역(交易)의 역’으로 규정하고, 후천역은 근원적 변화를 통한 새로운 차원의 질서인 ‘변역(變易)의 역’으로 규정하여 선천역과 후천역을 구분하였다... 정이천과 주희를 비롯한 성리학자들은 우주의 보편적 원리를 변역의 입장보다는 오히려 실재론적 관점에서 불역을 중심으로 주역의 세계를 해석한다. 그들은 현상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생성법칙을 ‘변역’으로, 현상계의 배후에서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절대불변의 실재(reality) 또는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진리, 혹은 모든 것이 변화하는 사실 자체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불역’으로 풀이하였다. 같은 글, pp.21-22.

부딪치면 역의 세계관은 역동성을 잃게 되고 고정적이고 정태적이 된다. 정역은 선후천관념을 다음과 같이 획기적으로 바꿨다. “선천역은 교역의 역이요, 후천역은 변역의 역이다.”²⁵⁾ 역의 역동성에 중점을 둔 것이다. 김일부는 선천역을 현상적 변화의 배후에 존재하는 법칙성 안에서 반복하고 교류하는 ‘교역의 장’으로 규정하고, 후천역은 근원적 변화를 통한 새로운 차원의 질서인 ‘변역의 장’으로 규정하여 구분함²⁶⁾으로써, 정태적인 역 해석은 동태성을 회복한다.

정역이 아니었다면 우주변화에도 불구하고 역 해석은 여전히 리를 중심으로 담보하고 있었을 것이나 정역 덕분에 후천세계의 변화수준이 질적으로 달라졌다. 여기서 말하는 질적 변화는 ‘억음존양(抑陰尊陽)’에서 ‘조양율음(調陽律陰)’으로의 변화를 뜻한다. “억음존양은 선천시대 심법의 학이요, 조양율음은 후천시대 성리의 도이다.”²⁷⁾ 정역에서 선천과 후천은 음양의 비율이 다르다. “선천은 삼천양지요, 후천은 삼지양천이다.”²⁸⁾ 선천은 양이 셋이요, 음이 둘이므로 “선천시대 심법의 학”은 양강을 존중의 대상으로 삼고, 음유는 비하의 대상이었다. 이것이 “억음존양”의 정책이다. 후천은 음이 셋이요, 양이 둘이니 음양의 비율과 입지가 바뀌었다. 만일 “선천시대 심법의 학”을 그대로 적용하면 ‘억양존음’이 되어야 할 것이나 삼지양천의 후천시대에는 ‘억양존음’의 정책을 쓰지 않고 ‘음양의 조율(調律)’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리에 집착하지 않고 변화에 맞게 응하는 것이 정역의 행위법칙이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이것이 바로 정역 덕분에 달라진 질적 변화다. 아마도 정역의 “조양율음”의 원리를 우리 사회에 적용한다면 사회질서가 ‘불균형한 수직구조’에서 ‘수평적 관계구조’로 바뀌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5) 『正易·十一一言』, “先天之易, 交易之易, 後天之易, 變易之易.”

26) 양재학, 앞의 글, pp.21-22.

27) 『正易·一歲周天律呂度數』, “抑陰尊陽先天心法之學, 調陽律陰后天性理之道.”

28) 『正易·無極皇極月極日極體位度數』, “先天三天兩地, 后天三地兩天.”

2. 분열에서 통일로

만일 세상에 분열이 일어난다면 그 원인은 소통의 부재 때문일 것이다. 우주적 차원에서 선천시대는 천지비괘(☵☶)이므로 소통이 안 되는 때이다. 하지만 비괘가 지천태괘(☶☵)로 바뀌면 상황이 달라진다. 만물이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분열되었던 것들이 통일을 이루게 된다. 정역에 따르면 금화교역의 원리에 따라 천지가 ‘비괘에서 태괘로’ 변화된다. 비괘는 가고 태괘가 오기 때문이다.²⁹⁾ 두 괘의 괘상은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천지비괘는 천지가 서로 막혀 소통하지 못하는 상이다. 위에 있는 하늘은 위로 오르고 아래에 있는 땅은 밑으로 내려가니 서로 다른 길을 간다. 교류가 이뤄질 수 없다. 이와 달리 지천태괘는 천지가 만나 만물이 서로 통하는 상이다. 아래에 있는 하늘이 위를 향해 나아가고 위에 있는 땅이 밑으로 내려가니 서로 만나 교류하게 된다. 비괘는 막혀 소통하지 못하니 응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불통의 상태에서는 생명력이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비괘는 불균형과 부조화 그리고 분열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³⁰⁾ 이런 시기에는 군자가 나선다 해도 힘을 쓸 수 없다. 반면 태괘에서는 하늘과 땅이 서로를 향해 나아가 만남과 교류 소통이 자유롭게 이뤄져 응집력이 생기고 생명력이 확장된다. 이로써 태괘의 시대에는 분열의 요인은 해소되고 사회적 통일은 저절로 이뤄진다.

정역에 따르면 후천시대는 성숙기에 접어들어 모든 것이 안정과 조화와 균형을 되찾는 시기이다. 정역에 따르면 금화교역의 시기에는 생명이 소생하는 기운인 목운이 도래하여 인격변화가 가능하다. 금화교

29) 『正易·化翁親視監化事』, “嗚呼金火交易 否往未來.”

30) 불균형의 원인은 개벽운동으로 말미암은 우주의 중심축 변화에 따른 것이다. 우주의 축이 전자 운동에 의해 규칙적으로 불균형과 균형이 반복된다. 이러한 우주의 기울어진 기운의 형상으로 인해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만물이 불균형적으로 기울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바람. 정형욱, 「음양오행론과 정역에서 보는 개벽사상과 지구생태위기」, 『환경철학』 17 (2014), pp.158-165.

역으로 정음정양의 시대가 도래하고, 인간의 도덕적 변화가 수반된다면, 천지인 삼재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금화교역의 시대가 도래해도 인간이 천지의 사이를 이어주는 매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면 삼재의 소통은 이뤄지기 어렵다. 우주의 변화는 인간의 태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천지자연이 태괘의 시대를 맞아 서로 돕고 상생하며 조화와 균형을 꾀한다 해도 인간이 천지만물과 소통하지 못하면 천지인 삼재는 불통의 시대인 비괘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역의 세계에서 우주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인간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지만 인간이 우주의 변화에 따르지 않으면 그 결과는 재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태평경』의 관점이다. 생태 위기의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실존양식이 우주질서 유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가령 커다란 원이 하나 있고, 그 원이 오른 쪽 방향으로 돌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그 속에 있는 모든 존재는 같은 흐름 속에 있다. 그런데 만약 그 중심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면 원의 외부와 내부는 역행하므로 흐름이 순조롭지 못할 것이고 원의 내부는 혼란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때 원 안에 존재하는 것들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다. 인간의 의지와 행위가 자연의 운행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주의 시계가 태괘의 때를 연다 해도 천지인 삼재는 분열된 상태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나 인간이 자연의 질서, 도에 합치되면 삼재는 통일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내적 개혁이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다.

3. 소인의 시대에서 군자의 시대로

선천시대는 문명적으로 볼 때 성장기이므로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조화롭지 못한 시기이며, 인간은 아직 미성숙하고 균형을 갖추지 못한

존재이다. 이때 도덕적으로 미숙한 인간을 이끌어 주는 기준은 성인의 법도이다. 따라서 선천 시기의 역사주체는 성인이고, 학문이 중시된다. 그러나 후천 시기의 역사주체는 군자이며, 군자는 실천하는 존재다.

“선천과 후천을 인도(人道)의 관점에서 논하면 선천은 학문을 통하여 성장하는 시대이며, 후천은 성도(成道)하여 합덕(合德)하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선천의 중심 문제는 학문이며, 후천의 중심 문제는 실천이다. 선천에서 학문을 하는 존재를 소인(小人)이라고 하며, 후천에서 실천하는 존재를 군자(君子)라고 한다. 그러므로 소인이 학문을 통하여 君子로 변화하는 것이다.”³¹⁾

정역에 따르면 선천시대는 비괘요, 후천시대는 태괘다. 비괘에서는 “소인의 도가 자라나고 군자의 도는 소멸하고” 태괘에서는 “군자의 도가 자라고 소인의 도가 소멸한다.”³²⁾ 후천시대에는 소인의 무리가 가고 군자의 시대가 열린다. 소인의 활동은 위축되고 군자는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게 된다. 후천시대의 특징은 소인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군자가 환영받는 세상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은 실천하는 인간이라는 것이다. 『건괘·문언전』에서 대인이 성인을 의미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자.³³⁾ 대인이 성인으로 이해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행위법칙과 실천이 모두 도에 합당했기 때문이다. 이제 후천시대가 열리면 선천시대에 배웠던 학문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소용철학에서 역은 성인이 군자를 키우고 육성시키는 공부다. “무릇 역이란 성인이 군자를 키우고 소인을 사라지게 하는 도구다.”³⁴⁾ 이 세계에 소인의 무리가 소멸하고 군자들이 당당하게 활동하는 시대가 오기를 희구하는 소용의 언명이다. 혼란의 시대를 살면서 소용은 군자가 활기차게 활동하며 마음속에 품었던 뜻을 활짝 펼치는 시대를

31) 이현중, 「역수원리를 통해본 선진 유학의 소인과 군자」, 『한문학논집』 27 (2008), 초록.

32) 『周易·否卦』, “小人道長 君子道消也.”; 『周易·泰卦』, “君子道長 小人道消也.”

33) 각주 14번 참조.

34) 『皇極經世書·觀物外篇』, “夫易者 聖人長君子消小人之具也.”

기다린 것이다. 이런 희망을 조선말의 김일부 역시 똑같이 품고 있었던 것 같다. “서전 읽고 주역 배우는 것은 선천의 일이요, 이치를 궁구하고 몸을 닦기는 후천사람 누구일꼬?”³⁵⁾ 김일부가 보기에 선천시대가 학문탐구의 시기였다면 후천시대는 이것을 몸소 실천하는 시대이다. 그래서 성인의 법도를 배우는 것은 선천의 일로 이치를 궁구하고 실천하는 것은 후대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 두었다. 내가 보기에 소옹과 김일부가 애타게 기다리는 후천사람은 바로 지인(至人)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선천시대와 후천시대는 역사의 주체가 다르다. 선천시대에는 성인, 후천시대에는 군자다. 성인과 군자는 그 역할이 각기 다르다. 성인과 군자는 어떻게 다른가. 성인은 공평무사하여 만물을 이롭게 하며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인심(人心)의 위태로움을 탈각시키고 도심(道心)을 실현하는 존재다. 『상서·대우모』에 따르면 인간이 도심을 잃지 않고 유지하고 있을 때 자연의 이치에 순응할 수 있고, 천리를 따를 때 인심에 휘둘리지 않는다.³⁶⁾ 소옹이 보기에 성인이 만인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아(無我)에 있다. “성인은 사물을 이롭게 하지만 나[我]가 없다.”³⁷⁾ 사적 자아를 탈각시키고 공적 자아인 도심을 회복한 것이다. 따라서 성인은 도심으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반면 군자는 매순간 심통성정(心統性情)할 수 있는 사람이다.

신유가철학에서 인간의 마음에는 성(性)과 정(情)이 동시에 존재한다. 성은 도심의 근거로 인의예지 사덕의 실체이며, 정은 외물에 대해 발현되는 인간의 자연적 감정, 즉 ‘기쁨[喜]’, ‘노여움[怒]’, ‘슬픔[哀]’, ‘두려움[懼]’, ‘사랑[愛]’, ‘미움[惡]’, ‘욕심[慾]’을 말한다.(『예기·예운』) 인심을 위태롭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철정 때문이다. 감정은 일정하지 않아 변하기 쉬우며 흔들리기 쉽다. 주자철학에서 마음은 성과 정을 통

35) 『正易·九九吟』, “讀書學易先天事 窮理修身后人誰.”

36) 『尚書·大禹謨』, “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하니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켜 진실되게 그 중을 잡아야 한다.)

37) 『皇極經世書·觀物外篇』, “聖人利物而無我.”

술한다[심통성정]. 그러나 마음이 정을 통솔하지 못하면 인심이 위태로 워진다. 군자는 마음이 성과 정을 잘 통솔하고 다스려 흔들리지 않고 자연의 이법에 순응할 수 있는 인물, 사욕에 흔들리지 않고 성명의 이치를 따르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³⁸⁾ 정역사상에 따르면 정역시대에는 성명(性命)의 바름을 따르는 자가 지위를 얻고 당당하게 활개 치며 살 수 있고, 자연의 이법을 무시한 채 사리사욕에 치우친 소인은 설 자리를 잃는다. 소인이 득세하는 비괘에서는 성명의 바름을 지키고 의에 따라 사는 군자는 핍박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 김일부가 전망하는 정역의 시대는 군자들이 고통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군자가 뜻을 펼칠 수 있는 세계, 군자가 이 사회의 주역이 되는 세상이다. 이것이 후천세계이다. 그러나 이런 세상은 때가 바뀐다고 해서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지인(至人)이 와야 완성되는 것이다. 우주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변화된 인간, 지인을 기다리고 있다.

Ⅲ. 후천세계의 인간관

정역에서 사상(四象)의 생성변화는 사력(四曆)의 생성변화로 나타난다. 사력의 변화원리는 사력의 생성변화를 통해 표상된 시간성의 시간적 자기 전개 원리이다. 사력의 변화원리는 우주 역사의 전개원리인 셈이다.³⁹⁾ “하늘과 땅의 수는 해와 달을 수놓으니 해와 달이 바르지 않으면 역은 역이 아니다. 역이 정역이 되어야만 역은 역이 될 것이니 원역이 어찌 항상 윤역만을 쓰겠는가?”⁴⁰⁾ 하늘과 땅의 도수에 따라

38) 공자는 군자와 소인을 의(義)와 이(利)에 따라 구분한다. 군자는 의에 따라 움직이고 소인은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論語·里仁』, “子曰 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

39) 이현중, 『『정역』의 한국 사상사적 위상』, 『범한철학』 20 (1999), p.260.

해와 달이 운행한다. 해와 달의 운행이 바르지 않으면 역은 역이 될 수 없다. 김일부는 역이 역이 되기 위해서는 정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천은 오에서 구이니 거슬리고 팔을 쓰니 어긋난지라 윤역으로 맞춘다. 후천은 십에서 오이니 순하고 육을 쓰니 합당한지라 정역으로 맞춘다.”⁴¹⁾ 원역(原曆)에서 윤역(閏曆)이 나오게 된 배경이며 역의 성장과정이다. 역은 ‘원역에서 윤역으로’, ‘윤역에서 윤역으로’, ‘윤역에서 정역(正曆)으로’ 장성한다.⁴²⁾ 사력의 변화 과정은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 변화 발전하는데 역의 변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란 존재이다. 동아시아 문헌에서 인간은 이 세계를 구성하는 삼대 요소의 하나로 하늘과 땅 사이의 변화를 수용하는 존재, 변화를 주도하는 존재, 천지합덕을 구현할 수 있는 존재로 묘사된다. 그렇다면 후천세계의 질적 수준은 인간의 행위규범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주역·계사하』에서 천지의 위대한 덕은 낳고 낳아 생명력이 끊임 없이[生生而不已] 영속되는 것이다.⁴³⁾ 천지가 만물을 낳지 않으면 이 세계에 생명체가 없을 것이고, 생명력 없는 텅 빈 시간과 우주 공간은 아무 의미도 없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인간이 유의미한 존재가 되는 길은 천지가 만물을 낳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자연의 운행 법칙인 상도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천지의 마음을 돕는 것이다. ‘천지의 마음을 돕고’ ‘상도’에 어긋나지 않는 것은 유가의 관점에서는 인심을 극복해서 도심을 회복한 것을 뜻하고, 도가적 관점에서는 인위를 제한하고 무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후천세계의 주인공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0) 『正易·正易詩』, “天地之數數日月 日月不正易匪易 易爲正易易爲易 原易何常用閏易.”

41) 『正易·四正七宿用中數』, “先天五九逆而用八 錯閏中 后天十五順而用六 合正中.”

42) 이현중, 앞의 글, p.261.

43) 『周易·繫辭下』第1章, “天地大德曰生.”; 第5章, “生生之謂易.” 소옹의 견해도 같다. 『皇極經世書·觀物外篇』, “天地之心 生萬物之本也”(천지의 마음은 만물을 낳는 근본이다)

1. 『정역』의 인간관

후천시대에는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인간’이 요구된다. 정역이 요구하는 인간상, 지인은 ‘도심’을 확보하고 ‘무위’적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아 보인다.⁴⁴⁾ 즉 유가와 도가의 이상적 인간형을 조합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려면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고 순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인심이 작동할 때 인간의 행위는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지 못한다. 마음속에서 은미한 도심이 흔적을 감추면 자연의 법칙인 상도는 사라지고 인위를 추구하여 자연의 법칙에서 멀어지고 자연과의 조화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정역의 시대에는 자연과 공존하지 못하면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후천세계는 도심의 소유자들, 무위하는 자들의 시대이고 인심에 갇힌 사람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이기 때문이다.

정역의 인간관에는 ‘도심’을 확보하고 ‘무위’적 삶을 살았던 김일부의 성품이 반영된 것 같아 보인다. 스승 이연담이 준 화두를 보면 그가 ‘도심’과 ‘무위’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지녔다는 사실이 감지된다. “맑음을 보는 데는 물만 한 것이 없고 덕을 좋아하면 인을 행함이 마땅하다. 달빛이 천심월에서 동하니 그대에게 권하니 이 진리를 찾아 보시게.”⁴⁵⁾ 물은 노자가 말하는 ‘무위의 상징’이고, 덕은 유가가 추구하는 ‘도심’의 드러난 모습이다. 물처럼 욕심 없고 집착하지 않는 담담한 성품은 다음 구절에서도 드러난다. “진리가 세 갈래로 나누어짐이 이치의 자연함이니 이에 유도 되고 불도 되고 선도 된다. 뉘라서 내가 참으로 이 셋을 다 겪은 줄 알았으리요. 사람 없으면 홀로 지키

44) 복희도는 인간의 조화에, 문왕도는 자연의 순환에, 정역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용환, 「정역의 후천 개혁윤리」, 『윤리연구』 79 (2010), p.161. 이정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복희역이 무위자연의 소박한 역이라면 문왕역은 인위조작의 문교한 역이요, 일부역은 자연과 인문이 극도로 조화된 우주의 이상과 인간완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초탈의 역이라 하겠다.” 이정호, 「정역의 출현과 그 인간혁명에 대하여」, 『한국학보』 3(2) (1977), p.137.

45) 『正易·先后天周回度数』, “觀淡莫如水 好德宜行仁 影動天心月 勸君尋此眞.”

고 사람 있으면 전하리로다.”⁴⁶⁾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전할 만한 사람을 만나면 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홀로 간직하겠다는 그의 태도에서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가 엿보이지 않는 도가적 분위기가 은은하게 풍긴다. 우주적 흐름에 자신을 내맡기고 있는 도심을 회복한 자의 여유로운 모습이다. 여기서 언급할 것은 정역의 생명력은 도의 핵심을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정역에서 진리는 불교적, 유교적, 도교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처럼 참된 진리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

정역은 시간 개념을 증시한다. 정역에서 역의 삼대 명제는 ‘역(易)’과 ‘역(曆)’ 그리고 ‘성(聖)’이다. 이 때 ‘역’은 변화를 뜻하고 변화는 시간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역’은 책력을 뜻하며, ‘성’은 성인을 이르는 말이다. 「대역서」에서 역의 역됨은 시간에 있다. 역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시간관념이 필수적이다. “성스럽도다. 역의 역됨이여. 역이란 책력이다.”⁴⁷⁾ 역은 책력 곧 시간을 의미하는데, 시간관념이 없으면 성인은 존재할 수 없다. “책력이 없으면 성인이 없고, 성인이 없으면 역이 없다.”⁴⁸⁾는 언명은 시간이 의미를 갖는 것은 성인이 존재할 때라는 말이다. 광대무변한 우주 공간에 무한한 시간이 있다 해도 성인이 없으면 그것은 어떤 의미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역에서 인간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이다.

페이야르 드 샤프탱에 따르면 우주라는 시공간 속에서 인간은 특별한 존재다. 인간은 우주만물 가운데 가장 ‘복잡화된 존재’이며 가장 ‘의식화된 존재’이다. 인간이 출현하기 전까지 지구의 변화는 매우 미미했다. 그러다 인간이라는 의식적 존재가 출현하면서 지구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 인간의 발달과 더불어 지구의 변화는 놀라게 가속화된다. 우주의 시간대에서 인간의 출현은 지구 역사의 임계점으로 작용했고, 이후 인간은 ‘우주진화의 꽃’으로 ‘지구변화의 선두주자’로서 활동해왔다. 그런데 불행히도 인간의 왕성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우주라

46) 『正易·無爲詩』, “道乃分三理自然 道乃分三理自然 斯儒斯佛又斯仙 誰識一夫真蹤此 無人則守有人傳.”

47) 『正易·大易序』, “聖歲易之爲易, 易者歷也.”

48) 『正易·大易序』, “無曆無聖 無聖無易.”

는 시간과 공간은 혼란을 겪고 이 과정에서 생태계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페이아르의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팽창과 수축의 과정을 반복한다.⁴⁹⁾ 페이아르의 과학적 이론에 비추어볼 때 정역의 변화원리는 인간의 진화와 더불어 무한히 팽창되던 우주가 이제 다시 수축되는 시점에 이른 것 같아 보인다.

1) 天工의 주역

『정역·포도시』에 따르면, 천공(天工)은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⁵⁰⁾ ‘천공’의 사전적 의미는 ‘하늘이 하는 일’, ‘하늘의 조화’, ‘하늘의 기능’ 등이다. 한 마디로 자연이 이루어내는 위대하고 신묘한 변화 능력을 뜻한다. 도가적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이 자연의 운행을 방해하지만 않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이다. 그러므로 자연은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정역에서는 하늘이 인간과 더불어 일을 도모하고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도덕적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하늘이 일을 성사시키는데 인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천지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인간이 참여하고 동참하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이 때 하늘이 기다리는 인간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완성된 존재다. 좀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동아시아 사유전통에서 인간은 천지와 협력하여 우주의 진행을 돕는 관계로 인식된다. 소옹은 말한다. “천지는 만물을 낳고 성인은 만민을 기른다.”⁵¹⁾ 즉 천지가 만물을 낳는 것과 성인이 만물을 기르는 것이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소옹에 따르면 천지가 만물을 낳는 이치

49)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 바람. Pierre Teilhard de Chardin, 『샤르탱 전집 I 인간의 현상』, 이효상 역 (서울: 삼성출판사, 1971), pp.165-178.

50) 『正易·布圖詩』, “誰識天工待人成.”

51) 『皇極經世書·觀物外篇』, “天地生萬物 聖人生萬民.”

는 바로 역의 도다. “낳고 성장하고, 성장하고 낳는 것이 역의 도이다.”⁵²⁾ 역의 도는 천지가 낳고 낳는 법칙(生生)을 이르는 것이다. 인간은 천지 사이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존재다. 소용이 보기에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늘의 일이지만 인간을 키우는 것은 성인이다. 성인은 인간을 위대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길러주는 존재이다. 성인의 가르침이 없다면 인간은 한낱 천지 사이에 태어났다 이름 없이 사라지는 미미한 존재에 그치고 말 것이다. 유가철학에서 성인은 인간이 본받아야 할 모범적 존재다.

『大易序』에서는 세 종류의 성인이 등장한다. 하늘을 아는 성인[복희씨], 하늘을 즐기는 성인[문왕], 하늘을 어버이고 섬기는 성인[공자]이다.⁵³⁾ 김일부는 이 가운데 공자를 성인 중에 성인으로 꼽았다. “아아 성스럽다. 부자의 성인되심이여. 하늘을 아는 성인도 성인이지요, 하늘을 즐기는 성인도 성인이지나 하늘을 어버이로 한 성인은 그 오직 부자의 성인이심일세.”⁵⁴⁾ 김일부는 왜 복희씨와 문왕보다 공자를 더불어 ‘천공’을 도모할만한 성인으로 생각한 것일까? 인용문에서 공자는 하늘을 알고 하늘을 즐길 뿐만 아니라 천지를 부모로 여기는 성인으로 묘사된다. 천지를 부모로 섬기면 천지와 더불어 소통할 수 있고, 교류할 줄 알며, 천지의 화육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 현 시대가 요구하는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고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인간형이다. 정역은 후천세계의 모델로 공자를 제시하고 이런 유형의 인간이 바로 천공의 주역(主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이것이 『포도시』에서 암시하고 있는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간의 모습이다. 하늘이 더불어 일을 도모하고 성사시킬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그가 바로 천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사람인 것이다.

52) 『皇極經世書·觀物外篇』, “生而成 成而生 易之道也.”

53) 이정호, 『원문대조 국역주해 정역』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0), p.99.

54) 『正易·大易序』, “嗚呼聖哉. 夫子聖呼, 知天之聖聖也, 樂天之聖聖也. 親天之聖, 其惟夫子之聖乎.”

2) 천지의 중심, 至人

정역에서 천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지인(至人)’이다. 지인은 정역에서 단 한번 밖에 안 나오는 말이다. “천지는 해와 달이 아니면 빈 껍질에 지나지 않고 해와 달은 지인(至人)이 아니면 빈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⁵⁵⁾ 정역에 따르면 하늘과 땅의 중심은 해와 달이고, 그 해와 달 역시 인간이 없으면 실체 없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지인이 천지만물의 실체라면 지인은 정역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천지라는 텅 빈 공간을 만물로 가득 채워주는 것은 해와 달이다. 해와 달이 없으면 이 세상에는 아무 것도 존재할 수 없다. 정역은 해와 달 덕분에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이 가득하다 해도 인간이 없으면 실체 없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곧 인간이 천지의 중심이라는 것이다. 그럴까? 인간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인간이 천지의 중심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천지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카렌 호나이에 따르면 인간이 어둠 속의 맹목적 자아 승배에 빠지면 성장하지 못한다. 자신을 책임 주체로 가정할 경우에만 인간은 성장할 수 있다.⁵⁶⁾ 개인의 신경증적 치료도 내적 혁명이 전제되어야 하듯 사회의 병증 치료에는 더구나 도덕의 진화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이 세계에서 홀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모두 누군가와 혹은 그 무엇인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관계적 존재로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도덕성이다. 정역에서 유의미한 존재는 오직 지인 뿐이다. 그렇다면 지인은 성인과 어떻게 다른가?

소용이 보기에 이 세계의 모든 변화와 모든 일들은 인간의 마음에서 생겨나고 이루어진다. “모든 일은 마음으로부터 생겨난다.”⁵⁷⁾ 만사가

55) 『正易·一歲周天律呂度數』, “天地匪日月空殼 日月匪至人虛影.”

56) 카렌 호나이, 『내가 나를 치유한다』, 서상복 옮김 (서울: 연암서가, 2015), pp.26-27.

인간의 마음에 달렸다는 이런 주장은 인간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주만물은 제 자리를 잡아 안착할 수 없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소용철학에서 인간은 우주조화(造化)의 주체이다. “천리를 좇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조화가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⁵⁸⁾ 우주조화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자는 곧 지인이다. 소용철학에서 지인은 이 세계라는 구체적인 삶의 공간에서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자이다. “신은 있는 곳도 없고 있지 않은 곳도 없다. 지인은 타자와 더불어 마음이 통하는 자이니 그 근본은 하나다.”⁵⁹⁾ “지인은 타자와 더불어 마음이 통하는 자”라는 말에서 지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생각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타자와 마음이 통할 수 있으려면 그와 감응할 수 있어야 하고, 타자와 감응할 수 있으려면 먼저 자기를 비워야 한다. 자기를 텅 비우고 타자를 향해 마음을 활짝 열 때 지인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천리를 좇아 움직이는 자, 도심을 회복한 자의 모습이다.⁶⁰⁾ 장자철학에서도 지인은 자기가 없다. “지인은 자기가 없고, 신인은 공이 없고, 성인은 이름이 없다.”⁶¹⁾ 그래서 사물과 더불어 감응할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물처럼 자리이타(自利利他)를 실천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정역에 따르면 우주변화원리에 따라 자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간의 변화, 인간혁명이 요구된다. 정역에서 제시하는 인간상은 그 무엇에도 구애되지 않는 자유인이다. 그는 “유통무애하고 사통팔달하는 인격”의 소유자이며, 중정인(中正人)으로

57) 『皇極經世書·觀物外篇』, “萬化萬事生於心.”

58) 『皇極經世書·觀物外篇』, “能循天理動者 造化在我也.”

59) 『皇極經世書·觀物外篇』, “神無所在 無所不在. 至人與他心通者 以其本于一也.”

60) 소용의 역학에서 수(數)와 상(象)의 근원은 태극이다. 하늘과 땅은 도(道)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이루어지는데 이때 도는 태극을 말한다. 태극이 인간에게 부여되면 그것이 곧 리(理)이고 성명이다. “성명(性命)의 이치에 따르는 것이 자연을 따르는 것이다.”(『皇極經世書·觀物外篇』, “將以順性命之理者 循自然也.”)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성명의 이치에 따르는 것이다. “이치란 곧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것이고 사람이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다.”(『周易·繫辭下』, “理者即天之所賦於人 人之所受於天者也.”) 따라서 인간이 리를 따를 때 우주의 법칙인 태극이 온전히 실현된다. 요약하자면 리는 성명의 이치이고 자연의 법칙이며 태극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성명의 이치를 따르는 것은 우주조화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다.

61) 『莊子·逍遙遊』, “至人無己, 神人無功, 聖人無名.”

팅 빈 마음으로 우주와 회통하는 자이다. 이정호는 정역의 인간학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정역사상에는 사랑과 평등과 조화가 있다. 둘째, 정역은 도학의 연원을 계승하고 있다. 셋째, 정역에는 존공사상(尊空思想)과 황극정신(皇極精神)이 있다. 넷째, 정역에는 삼교일치에 의한 복지사회건설의 목표가 있다.⁶²⁾ 이런 인격의 소유자는 뛰어난 지도자 즉 한 사람의 성인이 아니다. 개별적 인간이 모두 변화되지 않으면 이런 사회가 이뤄지기 어렵다. 그러므로 후천세계의 주역이 될 지인은 균계일학 같은 뛰어난 성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 혁명을 이룬 개별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

강증산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천존도 지존도 아닌 인존이라는 점에서 대순의 인간관은 정역사상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에 정역의 지인 개념은 강증산의 사상에서 척과 해원이라는 종교적 실천윤리로 확장되어 대중사이에서 자리잡아가고 있다.

2. 대순의 인간관

대순의 인간관은 척과 해원의 주체로서 심신의 수양이 무엇보다 강조된다. 강증산은 김일부와의 교류를 통해서 우주의 결정론적인 자연법칙 속에서 인간이 주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⁶³⁾ 강증산은 천지의 중심은 인간이고, 천지일월은 지인이 없을 때 실체 없는 하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일부의 생각을 그대로 계승했다. “사람이 없으면 천지도 없다.”⁶⁴⁾는 증산의 말은 “성인이 없으면 역이 없다”⁶⁵⁾는 정역의 어법과 같다. 아무튼 증산은 인간이 우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한 뒤 다

62) 이정호, 「정역의 출현과 그 인간혁명에 대하여」, pp.145-147.

63) 정형욱, 앞의 글, p.165.

64) 『전경』, 교법 3장 47절, “無人無天地.”

65) 『正易·大易序』, “無聖無易.”

음과 같이 선언한다. “「선천에는 모사가 재인하고 성사는 재천이라」 하였으되 이제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⁶⁶⁾ 동아시아인의 사유전통에 따르면 천시가 바뀌면 인간의 역할도 달라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천시가 변화되었으니 기획하고 도모하는 것은 하늘의 일이 되었고, 인간에게는 오직 하늘의 기획안에 따라 이루어야 할 의무가 부여될 뿐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이 이루어지고 앓고는 모두 인간의 태도 여하에 달렸다는 것이다. 바뀌 말하자면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나 변화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이다. 이에 강증산은 ‘척’과 ‘해원’이라는 개념을 제출했다. 이것은 인간의 개별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법이다. ‘척’과 ‘해원’을 통해서 강증산이 얻고자 한 것은 인간 개개인이 내적 변화를 통해 ‘천공(天工)의 협력자’가 되길 바란 것은 아니었을까.

1) 척과 해원의 주체, 心身

대순사상에서 인간은 ‘척의 원인’이며 ‘해원의 주체’이고 또한 ‘상생의 중심’이다. 강증산이 보기에 우주의 질적 변화는 인간으로 말미암아 누적된 결원이 해소되어야 가능하다. 강증산은 인간이 주체적 지위를 회복하고 우주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심신(心身)의 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마음을 정결히 할 것을 강조했다. “마음이 몸의 주로서 모든 병과 모든 악을 낫아 들이는 것이다.” “죄는 마음이 짓고 벌은 몸이 받는다.” “병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서 일어난다[病自己而發].” “마음이 내 몸을 좌우한다는 것을 깨달아라.”⁶⁷⁾

천도변화의 관점에서 논하자면 김일부와 강증산은 인간의 심신이 정화되면 천지인[三才]의 소통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생’,

66) 『전경』, 교법 3장 35절.

67) 『대순지침』, pp.48-49.

‘태괘’, ‘군자’의 시대로의 변화는 어렵다는 데 생각이 일치한다. 이에 강증산은 인간 개개인의 도덕적 변화를 촉구한다. 단 한 사람도 빠짐 없는 개별적 변화가 이뤄질 때 온전한 전체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원한을 품어도 천지기운이 막힌다.”⁶⁸⁾ 이 세계의 구성원 가운데 그 누구도 원한을 품거나 쌓아두는 일이 없어야 하며, 단 한 사람의 마음속에도 쌓이고 맺힌 것이 없어야 천지기운이 막힘없이 흐른다는 것이다. 강증산은 이 세상에 재앙이 끊이지 않는 원인이 인간의 잘못된 행위의 누적된 결과로 말미암는다고 보았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⁶⁹⁾

강증산이 보기에 이 세상에 온갖 재앙이 일어난 까닭은 상극의 원리로 지배되는 선천세계에서 쌓인 온갖 원한들이 맺혀 삼계를 채웠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천지의 흐름이 막혀 천지가 상도를 잃어 참혹하게 되었지만 이제 자신이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하니 신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원을 풀라고 한다.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인간 개개인이 모두 원을 풀지 않으면 후천세계가 도래하지 않을 거라는 강증산의 우주론적 우환의식이 엿보인다. ‘척’과 ‘해원’ 사상의 핵심은 개별적 인간의 내적 변화, 도덕적 혁명, 의식의 전환 요청에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강증산은 사후 세계를 겨냥한 내세적 구

68) 『전경』, 공사 3장 29절.

69) 같은 책, 공사 1장 3절.

원을 말하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공간, 머지않아 도래할 미래세계가 우리의 마음과 행동 여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다. 곧 개별적 인간이 모두 해원함으로써 천지변화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이런 원망이 쌓이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후천선경이 이룩된다는 것이다.⁷⁰⁾ 대순사상에서 우주론적 변화의 핵심은 인간 구성원 각자의 마음의 정화에 있다.

대순신앙에서 지인을 양성하는 방법은 척을 짓지 않고 해원함으로써 상생의 대도를 실천하는 것이다. “해원은 척을 푸는 일이며 척을 맺는 것도 나요 푸는 것도 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뚫으므로 상대는 스스로 풀리게 되니, 양편이 척이 풀려 해원이 되고 해원이 되어야 상생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⁷¹⁾ 강증산이 보기에 척의 원인은 ‘나’라는 아집에 사로잡혀 타인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집에 사로잡힌 자는 남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 타인과 교류도 소통도 할 수 없다. 자기만 옳다고 여겨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면 그것이 바로 척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내 경위만 옳고 남의 주장을 무시하는데서 반발을 일으켜 서로 미워하다가 마침내 원한을 품어 척을 맺는 법이다.”⁷²⁾ 척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풀 수 있는 것도 바로 나에게 있다. 해원의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순사상에서 해원은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의례이며 지인이 되는 방법으로 보인다.

인간이 척과 해원의 주체라면 척을 짓는 것도 해원할 수 있는 것도 마음의 문제로 귀착된다. 인간은 천지라는 물질적 배경과 신명이라는 정신적 배경을 근거로 삼아 실존하는 존재이며 마음[心]은 천지신명의 근원적 실체이다.⁷³⁾ 대순사상에서 마음은 인간 행위를 결정하는

70) 이에 동의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은 세계의 구조적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선천에서 누적되어 온 온갖 원한의 굴레를 풀고 다시는 원이 맺히지 않도록 세계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경원, 「한국 근대 신흥종교에 나타난 선·후천론의 특징: 대순신앙을 중심으로」, 『신흥종교연구』 4 (2001), p.258.

71) 『대순지침』, p.27.

72) 같은 책.

중추기관이다. 동시에 초월적 존재와 교류할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하며, 도(道)가 드러나는 문이며, 인간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중심축이다. 또한 마음은 귀신의 추기, 문호, 도로이다.⁷⁴⁾ 인간의 마음이 도의 통로가 되려면 인심(人心)을 텅 비워야 한다. 도로가 막히면 통할 수 없듯이 사람이 인심에 갇히면 타자와 통할 수 없다. 통하지 못하고 고립된 상태에서는 천지의 기운이 막힐 수밖에 없다. 도가가 보기에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인간이 천지의 상도를 따라야 한다. 상도를 상실하면 전체질서가 행위 규범에서 벗어나고, 그 결과는 생태학적 위기, 생명위기로 드러난다.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생태계붕괴는 인간이 상도를 상실함으로써 야기된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대순신앙이 강조하고 있는 후천선경이 목표가 아니라 해도 인간의 상도회복은 필요불가결한 시대적 요청임에 분명하다.

2) 天尊, 地尊, 人尊

강증산에 따르면 후천시대는 인존이 강조되는 시기이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⁷⁵⁾ 강증산이 인존을 강조하는 것은 마음의 정화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천지인 삼재 가운데 강증산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인간의 역할이다. 강증산은 인간을 천지라는 공간의 주인으로 보았고,⁷⁶⁾ 김일부는 인간을 책력이라는 시간의 주체로 보았다.⁷⁷⁾ 그러나 “천지라는 공간의 주인”, “책력이라는 시간의 주체”가 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시공간의 주인이 될 만한 자격을 획득해야만 한다. 대순사상에서 그 자격조건은

73) 이경원, 「대순사상의 인간관 연구-인존론을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12 (2005), pp. 298-309.

74) 『전경』, 행록 3장 44절, “心也者 鬼神之樞機也 門戶也 道路也.”

75) 같은 책, 교법 2장 56절.

76) 같은 책, 교법 3장 47절, “無人無天地.”

77) 『正易·大易序』, “無聖無易.”

심신의 정화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인존사상에서 요구되는 종교적 실천은 심신을 부지런히 정화하여 도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도심을 회복하면 인간과 자연의 조화원리를 체득하게 될 것이고, 우주만물의 공존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래세대의 새로운 우주질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바로 도심의 소유자이지 인심의 소유자는 아니다. 도심의 소유자는 천지의 주인이 될 수 있지만 도심을 회복하지 못한 자는 천지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내가 보기에 강증산이 인존을 강조한 것은 인간의 존귀함보다 인간의 막중한 책임감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⁷⁸⁾ 내적 혁명을 이룬 자, 의식의 변화를 이룬 자, 도심을 회복한 자만이 인존의 주체가 될 것이라는 뜻이다.

대순사상에서 후천시대에 천지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자격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과 같다. “천지가 사람을 낳고 사람을 쓰는데 사람으로 태어나 천지가 사람을 쓰는 때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가.”⁷⁹⁾ “천지가 사람을 쓰는 때”란 곧 자연의 운행에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로 볼 때 후천시대는 인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따라야 하는 시기인 것 같다. 인간의 실존양식이 자연의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인간의 태도 여하에 따라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공존은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천지의 화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강증산의 말은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유가적 관점에서 볼 때 강증산의 인존론은 공자의 정명론(正名論)을 내적으로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공자철학에서 사람이 사람으로서

78) 학자에 따라서는 인존이 인간의 존엄성이 극대화된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인존의 시대는 천지에 부여되었던 신격이 인간에게로 부여되어야 한다.”(이경원, 「강증산의 후천개벽론」, 『한국종교』 35, 2012, p.164). “하늘과 땅보다 인간이 오히려 존귀함을 받는 때가 이르렀다.”(김석한, 「대순사상에 나타난 인간주체에 관한 연구」, 『신종교연구』 5, 2001, p.131)

79) 『전경』, 교법 3장 47절, “天地生人用人 以人生 不參於天地用人之時 何可曰人生乎.”

의 가치를 지니는 것,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곧 그가 사람다움을 실현할 때이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⁸⁰⁾ “군군(君君)”에서 앞의 ‘군’자는 명사이고, 뒤의 ‘군’자는 동사이다. 임금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동사적 행위가 따를 때 그를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임금의 자격은 박탈되고, 신하 역시 신하라는 이름에 걸맞은 행동을 하지 못하면 신하로서의 자격이 박탈된다. 이렇게 의미를 확장해나가면 인간이 인간답지 못할 때 그는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강증산은 후천시대 인간의 자격을 우주적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천지의 화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사람이라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통성정할 수 있는 도심의 소유자인 군자, 해원상생을 실천하는 지인만이 후천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도덕적 혁명을 이루지 못한 채 계속해서 척을 짓는 사람을 인존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완성되어야 천공(天工)을 대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존의 핵심은 지인이라 할 수 있다.

IV. 맺는 말

기존의 『주역』 연구는 대부분 고정적이고 정적이었는데 반해 정역은 역동적이다. 정역의 역동성은 한국의 미래사회에 대한 화려한 전망을 제시했다. 정역에 의하면 한국은 지리적으로 만물이 종시(終始)하는 지역인 간방(艮方)에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정역시대에 접어들면 대륙의 동북지역이 아닌 천하의 중앙에 위치하여 당당하게 세계의 수

80) 『論語·顔淵』, “君君臣臣父父子子.”

위(首位)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한국은 앞으로 펼쳐질 정역세계의 관문이며 천하의 도의문(道義門)이 된다는 것이다.⁸¹⁾ 정역이 한국인에게 이렇게 밝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우주의 변화로 인해 때가 바뀌고 있으며, 후천세계는 선천세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세계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정역에 따르면 우주의 시간이 금화교역기에 접어들어 천지자연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정역과 대순사상에서 천지변화의 완성은 인간의 도덕적 실천이 전제될 때 이뤄질 수 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완성되어야 비로소 천지화육에 참여할 수 있고, 천지화육의 중재자로서의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것이 정역의 지인사상이고, 강증산의 인존사상이다. 정역의 지인 개념은 대순사상에서 하나의 실천원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 실천방법이 바로 ‘척’과 ‘해원상생’이다.

천지운행의 완벽한 조화와 균형이 이뤄지는 세계는 바로 우리가 꿈꾸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다. 정역은 우주의 변화원리에 따라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을 예고하고 있지만 강증산이 보기에 인심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인간은 천지화육에 참여할 수 없고, 천지의 올바른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역의 예고처럼 우주조화 원리에 따라 자연세계가 변화된다 해도 인간의 도덕적 회심이 수반되지 않으면 진정한 천지의 변화[天工]는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강증산은 정역의 형이상학적 원리에 입각해서 천공(天工)의 대행자가 될 만한 인간[至人]으로 변혁의 필요성을 감지하고, 인간의 도덕적 혁명을 위한 종교적 가르침과 실천의 근간으로 ‘척’과 ‘해원상생’이라는 실천원리를 제시했다. 이런 종교적 실천이 유효해서 미래세계가 ‘내적 개혁’, ‘도덕적 회심’, ‘의식의 변화’를 이룬 지인들로 구성될 수 있다면, 정역의 예고처럼 소인의 활동은 위축되고 군자가 환영받는 세상이 도래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81) 이정호, 『제삼의 역학』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2), pp.144-145.

【참고문헌】

『論語』

『尙書』

『莊子今註今譯』, 陳鼓應, 北京中華書局, 2001.

『莊子』

『正易』

『周易』

『太平經』

『전경』, 서울: 대순진리회 교무부, 1989.

『대순지침』, 서울: 대순진리회 교무부, 1984.

소강절, 『황극경세서』, 노영균 옮김, 서울: 대원출판사, 2002.

카렌 호나이, 『내가 나를 치유한다』, 서상복 옮김, 서울: 연암서가, 2015.

Pierre Teilhard de Chardin, 『샤르댕전집 I 인간의 현상』, 이효상 역,
서울: 삼성출판사, 1971.

요명춘, 강학위, 양위현, 『주역철학사』, 심경호 옮김, 서울: 예문서원, 1994.

이정호, 『정역연구』, 서울: 국제대학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76.

_____, 『원문대조 국역주해 정역』,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0.

_____, 『제삼의 역학』,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2.

최진석, 『인간이 그리는 무늬』, 서울: 소나무, 2013.

김석한, 「대순사상에 나타난 인간주체에 관한 연구」, 『신종교연구』 5, 2001.

김용환, 「정역의 후천 개벽윤리」, 『윤리연구』 79, 2010.

양재학, 「정역사상의 현대적 이해」, 『동서철학연구』 24, 2002.

이경원, 「한국 근대 신종교에 나타난 선·후천론의 특질: 대순신앙을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4, 2001.

_____, 「대순사상의 인간관 연구-인존론을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12, 2005.

_____, 「강증산의 후천개벽론」, 『한국종교』 35, 2012.

- 이정호, 「정역의 출현과 그 인간혁명에 대하여」, 『한국학보』 3(2), 1977.
_____, 『정역과 일부』,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4.
- 이현중, 「『정역』의 한국 사상사적 위상」, 『범한철학』 20, 1999.
_____, 「역수원리를 통해본 선진 유학의 소인과 군자」, 『한문학논집』 27, 2008.
- 임병학, 「한국 신종교에 있어서 후천개벽과 역(易)의 상관성」,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55, 2013.
- 정형욱, 「음양오행론과 정역에서 보는 개벽사상과 지구생태위기」, 『환경철학』 17, 2014.
- Chi-Tim Lai, “The Daoist Concept of Central Harmony in the Scripture of Great Peace: Human Responsibility for the Maladies of Nature”, *Daoism and ecology: ways within a cosmic landscape*, edited by N.J. Girardot, James Miller, and Liu Xiaogan. Cambridge, Mass: Center for the Study of World Religions, Harvard Divinity School, 2001.

▪Abstract▪

Consideration on Human in World of Post-Heaven: Focusing on perfect man of Right I Ching

Hye-Soon, Park

Sogang University

The theory of post-heaven provided Korea's many emerging national religions with spiritual ground. The I Ching originated in China emphasizes the principles of change or static aspects of world, while Right I Ching, which Il-Bu Kim suggested, underlines dynamic aspects of world. Il-Bu Kim is perceived to open a new stage in the history of philosophy of I Ching in this regard. His most remarkable contribution is the view of Great Opening Era of Post-Heaven, according to which the clock of cosmos shows the era of great change from Pre-Heaven to Post-Heaven and in the world of Post-Heaven everything will take its proper place. As to human society, Il-Bu Kim foresaw the change from disharmony to harmony, imbalance to balance and era of xiaoren to that of junzi. The advent of such a new world, however, asks human's moral revolution as a prerequisite.

In the tradition of East Asian thought, human is the center of the Sanjjae, Heaven-Earth-Human and the only being which could participate in the growth of Heaven and Earth. Without the change

of human mind, however, human can neither participate in the growth of Heaven and Earth nor expect the right change of Heaven and Earth. Even though the world of nature change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osmic harmony, as the Right I Ching predicts, the real change of Heaven and Earth can be achieved only with moral change of human. The human in the Right I Ching is a free man who sticks to nothing and communicates with cosmos with empty mind. This is the very image of perfect man(至人). The perfect man in the Right I Ching is the main agent of everything, that's to say, the main agent of the great opening to Post-Heaven Era. This is the reason why most leaders of Koran emerging religions concentrate on the change of human.

In this regard, Jeung-San Kang encouraged people to become the perfect man through the purification of mind and body and the great opening of inner man, depending on the metaphysical principle of the Right I Ching. Check and Resolution of grievances for the mutual beneficence of all life are what he suggested as a method of the great opening of inner man. Such a view is based on the thought that the accumulated sinful behaviors are obstacles to cosmic change and the time of mutual beneficence opens with the removal of the obstacles. If such religious practices are so effective, as Jeung-San Kang says, that future world could consist of perfect men who have achieved the great opening of inner man, moral change, and change of consciousness, we could expect that the activities of xiaoren will be shrunked and junzi will be welcomed, as the Right I Ching predicts.

Key words : Right I Ching(正易), Pre-Heaven(先天), Post-Heaven(後天), Perfect man(至人), Cheok(感), Resolution of grievances for the mutual beneficence of all life(解冤相生)

◎ 투 고 일 : 2015년 5월 31일

◎ 심 사 기 간 : 2015년 7월 24일~8월 5일

◎ 계 재 확 정 일 : 2015년 10월 6일